

새 세대들속에서 혁명선배를 존대하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중요한 요구

정 경 호

오늘 우리의 새 세대들앞에는 혁명선렬들의 고귀한 피와 땀이 스며있고 숭고한 념원이 어려있는 혁명의 붉은기를 최후승리의 령마루에 높이 휘날려야 할 성스럽고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대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받들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새 세대들속에서 혁명선배를 존대하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은 도덕교양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일관성있게 내밀어 청년들이 혁명선배를 존대하고 스승과 웃사람을 존경하며 도덕규범들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여야 합니다.》(《청년들은 당의 선군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한 전위투사가 되자》 단행본 13페이지)

위대한 수령님들과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새 세대들은 우리 조국의 미래이며 우리 혁명의 계승자들이다.

우리 혁명의 전도와 장래는 혁명의 명맥을 이어나갈 새 세대들을 어떻게 교양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다.

우리 혁명은 멀리 전진하여왔으며 새 세대들이 우리 혁명대오의 주력을 이루고있다. 이러한 현실은 새 세대들속에서 혁명선배를 존대하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새 세대들속에서 혁명선배를 존대하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이 우리 혁명의 중요한 요구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새 세대들로 하여금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주체혁명위업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개척되고 발전하는 인민대중의 위업이며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이다.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과감히 헤치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며 결심이다.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나가자면 새 세대들에 대한 교양사업에 힘을 넣어 그들을 혁명의 계승자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주체혁명위업계승완성의 담당자들인 새 세대들에 대한 교양사업에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바로 그들이 혁명선배를 존대하도록 하는것이다.

혁명선배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것은 혁명에 대한 태도문제이며 그것은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수령의 령도밑에 혁명선배들이 개척한 혁명위업은 한 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거쳐 완성되는 력사적위업이다. 이러한 혁명위업은 후대들이 혁명선배들을 적극 내세우고 그들의 혁명정신과 투쟁업적을 따라배우며 빛내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전진하며 완성되게 된다.

혁명의 계주봉을 넘겨받은 새 세대들이 혁명선배들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바로 가

지고 그들이 추켜든 혁명의 붉은기를 대를 이어 높이 들고나가야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혁명선배들을 존대하고 그들의 혁명정신과 투쟁업적을 적극 따라배우며 빛내어나갈 때에는 혁명이 승리적으로 전진하게 되지만 혁명선배들을 저버리고 그들의 혁명정신과 투쟁업적을 부정할 때에는 혁명이 중도반단되고 좌절되게 된다. 이것은 세계사회주의 운동의 력사가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이다.

혁명선배들을 존경하지 않을뿐아니라 그들의 혁명정신과 투쟁업적을 허무주의적으로 대하며 말살하는것은 혁명의 길에서 물러서며 혁명을 배반하는것으로 된다. 혁명선배들을 적극 내세우지 않고 그들의 혁명정신과 투쟁업적을 모독하는것은 혁명 그자체를 모독하는것으로 되며 혁명의 원쑤들앞에 아부굴종하는것으로 된다.

우리 나라에서 주체혁명의 시원이 열린 때로부터 장구한 기간 여러 세대가 혁명의 길에서 인민의 자유와 조국의 자주독립, 사회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고귀한 피와 땀을 바쳤으며 수많은 혁명선배들이 위훈을 세우고 빛나는 업적을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항일혁명투사들은 력사에 류례없는 가장 엄혹한 조건에서도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투쟁함으로써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였으며 조국해방전쟁참가자들은 나라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가렬한 싸움에서 미제를 피수로 하는 제국주의연합세력을 타승하고 영웅조선의 전승신화를 창조하였다. 뿐만아니라 천리마시대의 영웅들과 혁신자들, 선구자들은 전후 재더미우에서 짧은 력사적기간에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일떠세웠다.

세월은 멀리 흐르고 강산은 변하였지만 혁명선배들이 발휘한 숭고한 혁명정신과 그들이 이룩한 고귀한 투쟁업적은 절대로 잊혀질수도 지워질수도 없으며 강성하는 조국과 더불어 더욱 빛나고있다.

혁명선배들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고귀한 투쟁업적은 우리 혁명의 전취물이며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밑천으로서 영광의 나날에도, 시련의 나날에도 당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며 그 어떤 엄혹한 시련도 꺾기지 않고 당을 따라 혁명의 천만리길을 억세게 걸어나갈 신념의 기둥을 새 세대들의 심장속에 새겨주고있다.

새 세대들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에게 충실하였던 혁명선배들을 존대하도록 하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정치이다.

새 세대들을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의 계승자로 억세게 키우자면 그들에게 혁명선배들이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와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의 어려운 시기에 당과 수령을 어떻게 받들었으며 혁명의 난국을 뚫고나가는 길에서 어떻게 살며 투쟁하였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인식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새 세대들이 혁명선배들의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혁명위업에 대한 헌신성, 불굴의 투쟁정신을 적극 따라배우고 사업과 생활에 구현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새 세대들이 혁명선배들을 존대하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해나가는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백두에서 개척되어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온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

새 세대들속에서 혁명선배를 존대하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이 우리 혁명의 중

요한 요구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새 세대들로 하여금 고상한 도덕의리심을 지니고 온 사회에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넘칠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사람들이 고상한 도덕의리심을 지니고 온 사회에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는것은 사회주의를 완성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의 완성은 사회의 주인인 인간자신의 완성이며 인간의 완성에서 도덕적완성이 차지하는 몫은 매우 크다.

사람들이 도덕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가 하는것은 민족의 문명정도를 재는 중요한 척도로 된다고 말할수 있다. 사람들의 문화수준, 문명정도는 그들의 도덕품성에서 집증적으로 표현된다.

도덕의리는 혁명가의 품격을 규정하는 기본징표의 하나이다.

혁명가는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간직할뿐아니라 고상한 도덕의리심을 지닌 참다운 인간적품모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

선진적인 사상을 지니고있다 하더라도 순결한 량심과 도덕의리심을 지니지 못한 사람은 참다운 인간적품모를 갖추수 없다.

새 세대들이 고상한 도덕의리심을 지니고 온 사회에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넘치도록 하자면 그들속에서 혁명선배를 존대하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혁명선배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것은 혁명에 대한 태도문제인 동시에 새 세대들의 도덕의리에 관한 문제이다. 혁명선배를 존대하는것은 새 세대들에게 있어서 어길수 없는 혁명적의리이다.

어제가 없는 오늘이 없는것과 마찬가지로 혁명선배들의 영웅적인 투쟁을 떠나서 새 세대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새 생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지난 시기 사회주의를 건설하던 일부 나라들에서 혁명가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사회주의의 영상이 흐려졌으며 사회주의체도가 허물어지게 된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혁명선배들을 모독하고 그들의 업적을 말살하는 행위가 감행된데 있었다.

기회주의자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이 혁명선배들을 헐뜯고 그들의 성스러운 혁명투쟁과 위대한 업적을 모독하며 말살한것은 혁명적의리를 저버리고 초보적인 인간도덕마저 짓밟은 가장 비도덕적인 배신행위로 된다. 이것은 사람들속에서 사상적동요와 혼란을 조성하였으며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에게 전세대 혁명가들과 사회주의위업을 더욱 악랄하게 비방할수 있는 구실을 주었다.

사회주의배신자들이 온갖 수단과 교활한 수법을 다하여 전세대 혁명가들을 헐뜯고 모독하는 비렬한 책동을 서슴없이 감행하였지만 그것은 오히려 혁명의 배신자, 변절자로서의 본색과 비인간적면모를 드러내놓았을뿐이다.

후대들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한 혁명선배들을 존대하는것은 후세대 사람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혁명적의리이며 숭고한 도덕의무이다.

새 세대들의 정신도덕적품모를 보면 그 나라, 그 민족의 전도를 알수 있다. 그런것만큼 새 세대들이 주체의 혁명적도덕관을 튼튼히 세우고 건전하고 혁명적인 정신도덕적품모를 훌륭히 갖추어나가도록 하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새 세대들이 온 사회에 건전한 생활기풍을 확립하도록 하는 사업은 그들속에서 혁명선배를 존대하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는 사업과 밀접히 련관되어있다.

혁명의 선구자들인 혁명선배들을 존대하는것은 우리 인민이 대를 이어 빛내어나가는 고상한 도덕의리이며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새 세대들이 혁명위업을 위하여 생을 바치고 공적을 남긴 혁명선배들을 존대하도록 교양사업을 옹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고상한 도덕의리심을 지닐수 없으며 온 사회에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할수 없다.

그러므로 자기 개인의 리익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후대들의 행복을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싸운 혁명선배들을 존대하고 그들에 대한 혁명적의리를 지키는것을 숭고한 의무로, 영예로 여기는것이 새 세대들의 도덕관으로, 도덕적의무로 되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오늘 새 세대들속에서 혁명선배를 존대하도록 교양사업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문명국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도덕교양을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위대성교양과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과 함께 5대교양의 하나로 내세우고 근로자들 특히 새 세대들속에서 고상하고 문명한 도덕기풍을 확립하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킴으로써 새로운 문명개화기를 열어나가고있다.

고상한 도덕의리적관계, 사랑과 믿음에 기초한 참다운 사회주의적인간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활짝 꽃피워나가며 이 땅우에 사회주의문명국을 반드시 건설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가 바로 새 세대들에게 맡겨져있다.

새 세대들이 고상한 도덕의리심을 지니고 혁명선배들을 사회적으로 적극 내세우며 우대할뿐아니라 생활에서 아무런 불편도 없도록 진정을 다하여 돌보아줄 때 온 사회에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할수 있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의도대로 새 세대들속에서 혁명선배를 존대하도록 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해나감으로써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가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